

experience
Life As Mission

129th, Summer, 2018

인 터 서 브 프렌즈



contents



Value
번혁의 공동체
Transforming Community

- 03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한 선교 _ Bijoy 국제총제
- 06 인터서브 공공 모임 코드
- 08 조선 청년이 바라본 통일과 남북 관계 _ 박요셉 프렌즈

People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
Interserving People

- 11 프렌즈를 만나다 _ 이승도 부산 이사
- 14 믿음의 명문 가정 어버이날 위로회 리뷰 _ 양병식 프렌즈
- 17 미션얼 패밀리 _ 임사라 파트너

Ministry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All Things To All Peoples

- 20 회복을 기다리는 나라 캄보디아
- 22 캄보디아 쥘이팜을 소개합니다 _ 황성연 파트너
- 24 인터서브 전략 사역팀 뉴스
- 26 선교 담당 목사 세우기 _ 송기태 부대표

*Creation Care
인터서브 프렌즈는 친환경적인 용지로 제작되었습니다.



Value

가치 Value 는 사람과 사역에 우선합니다.

Mission through kingdom communities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통한 선교

Bijoy (국제총제)

인터서브의 강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다양성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 30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문화 공동체로서, 서로 다른 문화적 규범과 질서들을 존중하며 서로의 다양성을 기뻐합니다. 또한 초교파 단체로서 다양한 영적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적 전통에서 비롯된 다양한 관점이 하나님을 더욱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에 대한 존중으로 우리는 더욱 풍성한 공동체가 되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양하면서도 광범위한 그룹의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일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 몸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모두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안에서 일함으로써 연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배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는 공통적이고 본질적인 요인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며,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은 비전과 목적 안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삶과 공동체를 일으키는 것이며,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와 아랍 세계의 사람들을 위해 부름 받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총체적인 사역을 통해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과 목적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통해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회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변혁에 동역할 제자들을 삼는다.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장한다.

하나님의 선교에 교회가 참여하도록 섬긴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파트너십을 세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있어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사역하는 방법을 통해 연합합니다. 인터서브는 초창기부터 총체적인 선교의 모델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전인적 필요에 관심을 두고 계시며, 총체적 사역을 통해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포괄적인 다문화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한 기나긴 여정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과업이 남아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차이보다는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요소들을 기억하며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의 변화는 빠르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회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Operation World는 2020년에는 전 세계 교회의 80%가 제3 세계에 세워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러한 세계 교회의 인구 변화는 앞으로 어느 지역에서 선교 헌신자가 나타날지 보여주는 표식이기도 합니다. 제3 세계에는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놀라운 선교 운동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러한 변화들 속에서, 우리는 현재 사역 방식들의 변화를 도전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교적 성찰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과거에 옳다고 생각했던 방법들이 현대적 필요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슈들 중 저는 여기서 2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1. 우리는 복음에 대해 새롭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오랜 기간 복음은 매우 좁은 시각을 통해서 이해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한 인간의 개인적 구원만을 위한 좋은 소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매우 부분적 진리입니다. 물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개인적인 죄사함과 구원을 얻는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메시지는 이보다 훨씬 풍성합니다.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어둠의 왕국은 패했다는 사실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죄사함과 새로운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맺게 된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사건들을 통해 일어납니다. 복음은 단순히 인류가 위에서 오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통해 그들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류는 정의, 자비, 사랑, 은혜, 용서와 같은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우리는 선교가 무엇인지 새롭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는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매우 잘 설명해줍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말했듯,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선교를 수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교를 위해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선교 활동을 매우 개인적인 관점으로 이해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선교는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특정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앞서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그랬던 것처럼, 이는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지만 총체적인 진리를 담아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선교 활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정 개인들을 불러 어떠한 일을 수행하도록 보내시는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공동체를 통해 그들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선교에 대한 성경적 패러다임은 사역하는 개인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살아냄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세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적 패러다임과 일치합니다.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적 도구입니다.

우리가 하나 된 다문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모든 가치를 실천하는 진정한 공동체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아시아와 아랍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삶이 진실로 가능할 것입니다. 깨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냄을 통해 우리가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세상의 사람들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태동하고 성장하도록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힘써 노력합니다. 

인터서브 공공 모임 코드

인터서브 공공 모임 코드란?

인터서브 파트너, 이사, 프렌즈 등이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낼 때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우리 공동체의 문화적 코드입니다.

1. 예수 그리스도를 성찰함 **Reflecting on Jesus as Christ**

인터서브의 시작에는 영국과 미국에서의 20년간의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인터서브의 모임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성찰함과 기쁨함이 있습니다.

2. 비전과 가치의 확인 **Confirming vision, purposes and core values**

인터서브는 비전과 가치를 위해서 공동체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을 기꺼이 포기했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인터서브의 모임에서는 비전과 방향성과 핵심가치를 서로 나누고 확인합니다.

3. 참여적 **Participatory**

국제 인터서브의 운영에 있어서 전체 구성원이 함께 대화하고, 성찰하는 일주일 동안의 리더스 컨설테이션이 가장 큰 권위를 갖습니다. 인터서브는 모임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프로그램의 기획과 진행에 함께 하며 함께 일하는 것 자체를 기쁨하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4. 상호 간의 대화와 교제 **Fellowship-leading**

인터서브는 영국 여성들의 Tea time 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국제 인터서브 모임의 중심에는 Tea Time 이 있습니다. 인터서브의 모임에는 참석자들이 자발적으로 교제하고 대화하는 충분한 시간과 다양한 장이 마련되며 모여서 함께 보내는 시간 자체를 사랑합니다.

5. 싱글과 가족들에 대한 존중 **Respect for singles and family**

인터서브의 시작에는 싱글 여성들과 엄마들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축복합니다!
싱글 성인,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부모님 등 함께 오신 분들 각각 그룹에 대한 충분한 배려와 가치있는 시간이 제공됩니다.

6. 환경 보호 **Creation c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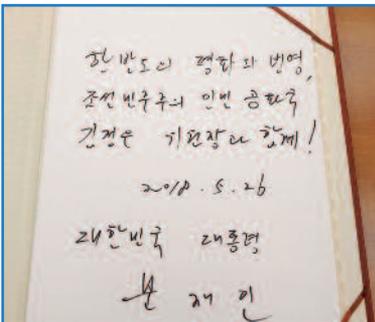
우리 목적 선언문에서 중요한 한 부분인 “총체적 선교를 통하여” 라는 점을 기억합니다.
모임 진행 중 공간과 시간과 물질 사용함에 있어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합니다. 🌱





조선 청년이 바라본 통일과 남북 관계

박요셉 프렌즈는 탈북민 출신으로 사회적 기업 '요벨'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 기업가입니다. 탈북 후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른 탈북민들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탈북 청년들을 고용하고, 그들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2018. 5. 26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북측을 방문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방명록에 글을 남기면서 “북한”이 아닌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공식 국가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2013년 대학교를 막 졸업한 저에게 MBC 통일전망대 피디닝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정전협정 65주년을 기념하여 MBC에서 “DMZ에서 베를린까지”라는 기획 의도로 체제 변환국인 체코, 폴란드, 동독을 여행하는 컨셉으로 다큐 스페셜을 준비하는데 5명의 남북 청년 멤버 중 한명이 되어 줄 수 있는냐는 제안이었습니다. 협동조합 모델로 창업준비를 하던 저는 협동조합의 고향인 영국의 로치데일도 가보고 싶었기에 흔쾌히 승낙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를 포함한 4명

의 새터민 청년, 그리고 2명의 남한 청년과 함께 동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기 까지는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10년 가까이 북에 두고 온 가족들 때문에 되도록이면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으려고 노력해왔는데 미디어에 얼굴을 노출했을 때 가족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 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남과 북의 분단이나 혼자만의 책임이 아닌데 왜 나는 분단의 피해자가 되어 숨어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을 하며 다큐멘터리 출연을 결정하였습니다. 체제 변환 국가인 체코와 폴란드 주민들이 어떻게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체제가 변환되는 과정을 견뎌내고 살았는지에 대해 여행 전 여러 논문들과 책들을 읽으면서 잔뜩 들뜬 마음으로 체코와 폴란드 땅을 밟았습니다.

내가 떠나온 고향 땅과 비슷한 건축물 디자인들과 사회주의 잔재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해외에 나가서 다시 내가 살아온 북과 남을 생각하며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북에서는 “남조선” 이라고 하고 남에서는 “북한” 이라고 할까?

북에서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남쪽에 있다고 ‘남조선’이라고 부르고, 남에서는 대한민국의 북쪽에 있다고 ‘북한’이라고 부르며 서로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부르는구나 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2004년 서울에 온 이후로 나의 이름 앞에 항상 따라붙어 다니던 수식어 “탈북자”, “북한이탈주민”도 내가 서울에 오기 전까지의 삶에 대한 존중이 없이 생성된 수식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유럽에서 돌아온 이후 저는 탈북자 박요셉이 아닌 “조선청년” 박요셉으로 저를 소개했고, 북한이라는 단어 대신 “조선”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시니어선교한국 북한선교 분과모임에서는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어르신들로부터는 중북좌파라는 욕을 먹어가면서도 저는 조선이라고 부르고싶은 저의 생각을 내려 놓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5년의 시간이 지난 5월 26일 2차 남북정상회담차 판문점 통일각을 방문하고 남긴 문재인 대통령의 방명록을 보는 순간 제 마음에는 잔잔한 감동이 있었고 얼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통일은 그렇게 상대를 존중해주면서 서로 친구가 되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이가 되었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미 대한민국에 와 있는 3만 여명의 새터민들이 나는 조선에서 온 “****”입니다. 라고 이야기 했을 때,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가 되었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의 이글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무산청년의 생각을 인터서브 프렌즈들과 나누어 봅니다. **##**

박요셉 프렌즈



People

사람 People 은 사역보다 소중합니다.



프렌즈를 만나다



부산이사회 _ 이승도 이사님

매달 셋째 주 목요일, '세계로 병원' 세미나실은 기도의 열기로 가득합니다. 선교를 향한 뜨거운 열정 속에서 인터서브 부산 이사님들이 모여 세계 선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중보하고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지속 되는 이 기도회 모임에 가운데 복음을 위해 한 평생 헌신한 이승도 이사님이 계십니다.

이승도 이사님은 부산에서 의료선교의 초석을 쌓은 부산의료선교회 '세계로병원'을 시작하셨습니다. 8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번치 않은 열정으로 열방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이사님을 만나보았습니다.

Q. 이사님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도 이사입니다. 외과의사로 고신의과대학 교수로도 역임하였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부산 의료선교회 안에 세계로 병원, 의료선교교육 훈련원, 연수원, 선교국 이렇게 4개의 기관을 운영하고,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Q. 믿음을 가지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모태신앙입니다. 부모님께서 미국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들으시고는 신앙을 가지셨죠. 복음을 통해 저의 가정이 변화되었습니다. 모태 신앙으로 자랐지만, 고1 때 시골교회 사경회 통해 비로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Q. 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던 계기가 있으신가요?

대학교까지도 선교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군의관 갔다 와서 장기려 박사가 운영하던 복음 병원에서 일하면서 고신의과대학 창설멤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때 의료 선교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Q. 그 이후 어떤 선교적 삶의 길을 걷게 되셨나요?

1989년 제 1차 의료선교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결신한 학생들을 위해서 서울 의료선교 교육훈련원이 시작되었습니다. 1992년에 제가 부산 의료선교 교육원을 시작했습니다. 95년에 우즈베키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시작으로 부산의료선교회가 96년에 세워졌고,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훈련 기지로서 세계로 병원을 개원함과 동시에 선교국을 2004년 만들어서 파송을 시스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의료선교 교육훈련원에서 교육받은 졸업생 767명 중 99명이 장단기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그중 23명을 주파송 선교사로, 나머지는 협력으로 파송한 상태입니다.

Q. 인터서브와는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되셨나요?

호산나 교회의 최홍준 목사를 다시 만나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최목사는 저의 주일학교 학생이었는데, 최목사가 인터서브를 연결해주었죠. IVF 총무였던 남진선 초대 대표와 최목사가 신학교 동기였고 그 인연으로 인터서브 이사로 활

동하게 되었죠. 정태산 장로, 김성진 원장, 김상순 장로와 함께 부산 인터서브 이사회를 시작했고, 부산 의료선교회를 세운 후에도 인터서브와의 협력을 계속했습니다. 저의 주 사역은 제가 세운 부산 의료선교회이고, 인터서브는 협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료선교회와 인터서브가 공동파송 한 선교사들은 김은경, 양승봉, 배대환, 우진호 선교사들 가정들입니다.

Q. 인터서브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처음 인터서브 모임을 가졌을 때는 파키스탄의 권우영 박사 가족, 터키에 박용덕, 인도에 가는 전태영 가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8년이 지난 지금 1시간이 넘도록 기도할 만큼 부산 출신의 사역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정말 감개무량한 변화이며 성장이며 감사할 일입니다.

Q. 선교적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사는 삶. 전방이든 후방이든.

Q. 선교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돕는 것. 지금은 이 일을 어디에서 할 수 있게 선교적 환경이 변해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다양한 모습으로 선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卍



믿음의 명문 가정

부산 이사회 어버이날 리뷰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낳신 선교지에 보내야만 했던 애달픈 마음들과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간증이 가득한 은혜의 현상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의 간증은 저에게 뜨거운 감동을 선사하는 한편, 2년 전 소천하신 나의 어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일평생 다섯남매의 근심과 걱정에 편안한 날이 없으셨던 나의 어머니...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기에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일평생 기도하셨던 어머니...

외아들로서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 했기에, 어머니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세계각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부모님들의 모습을 직접 보며 “자녀들이 기업”이라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여기 앉으신 부모님들은 최고의 기업을 이 세상에 남기시고, 그 사명을 다하셨음에 가슴 뿌듯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이전 보다 더욱 견고한 믿음이 자녀 세대로 이어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명문 가정입니다. 오늘의 모임을 통해 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천대까지 이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영적 비밀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6학년 딸아이 은총이도 함께 사역을 도우며 우리 가정 구성원은 모두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우리 가정에 부으시는 영적인 축복을 한아름 담아가게 되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나의 어머니, 아버지라 불리는 부모님과 자식의 인연으로 만나, 하늘의 대사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선교지로 떠나보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연과 아픔의 순간이 있었을까?



부모님들은 선교지에서 보내온 영상 편지를 보시면서 자녀와 손주들이 보고 싶어 어느새 눈물을 글썽이십니다. 혹여 선교지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애간장 녹이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름다운 기도의 향기로 이 순간 천국보좌를 가득 채우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듯, 인터서브 파트너들의 부모님들도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아들, 딸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드리셨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부대표님의 메시지가 부모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세우면 한 민족이 세워질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음지에서 현



지인들을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부 행사는 인터서브 가족과 함께 천국잔치를 만끽하며 예배와 간증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축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2부 행사는 식사 교제로서 함께 먹고, 마시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 위로회를 통해 사랑하는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위로의 시간이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행사를 주관하신 본부 스태프들과 협력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

양병식 프렌즈는 2018년 인터서브 멤버케어팀으로 합류한 조안나 선생님의 남편으로, 이번 어버이날 위로회를 딸 양은총양과 기쁨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소개합니다

임사라

다음 세대 텐트메이커 사역



안녕하세요 인터서브 코리아에서 최영준 파트너와 함께 다음 세대 텐트메이커 커뮤니티 및 프로젝트 사역을 섬기게 된 임사라 파트너입니다.

인터서브가 섬기는 아시아 및 아랍권의 많은 지역들은 창의적 접근 지역에 해당하며, 따라서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들어가 그 곳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일하며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텐트메이킹 사역 방식은 상황적 필요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사역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과 사도 바울 등 성경 속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발자취를 남긴 사역 모델입니다. 새벽 이슬같은 한국의 청년들이 이제 이 믿음의 길을 걷게 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또 이들을 섬기는 사역을 인터서브와 함께 하게 된 것으로 인해 기쁘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청년들을 섬길 뿐 아니라, 텐트메이커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Ministry

사역 Ministry 은 성령께서 이끄십니다.



캄보디아 회복을 소망하는 나라

높고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노을,
순박한 사람들의 씩스러운 미소와
아이들의 개구진 웃음소리가
동네를 가득 메우는 나라, 캄보디아



2018 인터서브 필드 소개 _ 캄보디아

“언뜻 보면 캄보디아는 행복하게 밝게 웃는 사람들의 나라처럼 보인다.
그러나 더 깊게 들여다보면, 음지와 양지, 부자와 빈민, 사랑과 증오,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모순을 보게 된다”
(론리플래닛 발췌)

아직도 캄보디아는 40년 가까이 이어진 폴 포트(Pol Pot)와 크메르 루즈에 대한 트라우마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과 폭력, 약물 남용, 우울증, 빈곤과 부정부패, 매우 빈약한 교육과 건강 보험 등 사회 전반적으로 아주 큰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아직까지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희망을 품고 나라 곳곳에 깨어진 곳을 보수하고자 합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근면하고 진취적이며,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부정부패가 그 노력들을 너무나도 쉽게 배신합니다. 부정부패는 사회 근원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있으며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복음과 그 안에서 발견되는 희망과 자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인터서브 팀은 새롭게 만들어진 팀임에도, 불과 몇 년 사이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45명의 파트너가 함께 일하고 있으며 온트랙(단기 사역자)들에게 매우 인기가 좋은 선교지입니다. 단기 사역자들이 와서 안정되게 사역할 수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Daughters of Cambodia” 는 인신매매에 연루된 여성들을 돕기 위해 재봉 센터와 카페,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기 사역자들은 이곳에서 영어 프로그램, 사회 복지 부서의 프로그램의 진행하거나 목공일이나 게스트하우스 관리하는 일을 돕습니다. 또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Hope 기독교 학교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한편 IT 분야나 재정, 변호사 등 특정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사역지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온트랙의 기회를 원하는 지원자가 많아 6개월 미만의 지원자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일정한 수의 온트랙들이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온트랙들의 숙박을 위한 “온트랙 하우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번도 빈방이 없이 북적거려, 가끔은 우리도 쉬고 싶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온트랙들은 인터서브 라이프그룹 안에서 함께 생활하며, 하나됨과 서로 도움을 경험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살기 쉬운 나라가 아닙니다. 더위와 소음, 먼지 그리고 교통체증은 우리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킵니다. 온트랙들은 언어를



배울 시간적 여유나, 정서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개발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 선교사들 보다 더 큰 유연함과 탄력성이 요구되어 집니다.

“저는 이성을 유지하면서 완전히 이수라장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배웠 습니다.”

온트랙은 인터서브팀에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 이라는 것을 압니다. 만약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경험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회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

Cambodia



인터서브는 온트랙 프로그램을 통해 1개월~2년 동안 선교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캄보디아 지역과 온트랙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031-778-7932, ontrack.isk@gmail.com 으로 문의해 주세요.



캄보디아 쥬이팜을 소개합니다

캄보디아 쥬이팜은 캄보디아 쥬이 대학생 선교의 자립을 돕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황성연 김세희 선교사가 2006년부터 캄보디아 국립 과학기술대학에서 대학생 모임을 시작함과 동시에 현지 사역자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방편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캄보디아 대학생들의 캠퍼스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씩 성장하여 현재 전임 사역자 10명, 협력 사역자 3명이 현지 대학생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사역자들은 캄보디아 명문 대학을 졸업 후 부모와 친구들의 기대를 뒤로한 채 캠퍼스 사역을 위해 적은 사역비로 18개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현지 사역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학생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매일 캠퍼스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정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의 정치 경제적 상황은 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 경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고 캄보디아 현지 교회들의 상황도 예전에 비해 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 교회 상황도 어려워지면서 현지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와 사역비 모금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사역자들의 사역비와 생활비 후원을 위한 자립 차원에서 쥬이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쥬이팜에서는 단계적으로 고무, 후추, 커피, 캐슈넛을 심어왔고, 작년부터 후추가 첫 생산되어 시범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후추 생산이 본격화되어 이렇게 지면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캠퍼스 사역 간사였던 3명의 간사(토니, 속키, 피사이)가 죠이팜 사역에 헌신하여 현재 캠퍼스 사역을 후원하기 위해 죠이팜을 섬기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죠이팜은 지역 사회 안에서 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업의 기회를 제공하며, 가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경제활동 기회와 의료, 자녀들의 교육, 신앙생활 등을 돕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캄보디아 대학생 사역자들의 생활비와 사역비 일부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죠이팜은 다른 대규모 기업형 농장과 달리 소규모 농장이라 가격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 현지 농민들의 삶과 캄보디아 대학생들의 삶을 도울 가치 있는 소비자들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가난한 삶에서 자립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현지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의미 있는 선물로 캄보디아 최상의 특산물인 착한 후추를 소개합니다. 각 교회의 선교 바자회나 설, 추석 명절 시 캄보디아 가난한 농부들과 대학생 사역자들을 후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택배로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죠이팜은 2020년부터 직접 소량 생산한 최고급 커피와 캐쉬넛도 판매할 예정입니다.

2018년 7월 27일 ~ 8월 10일까지 캄보디아 죠이 사역자들은 캄보디아 대학생 사역 홍보 및 필요를 전하기 위해 한국에 잠시 방문합니다. 한국의 좋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도전과 위로를 받게 되고 캄보디아 현지에서 자립을 위한 좋은 기회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卍

황성연 파트너



죠이팜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신
분은 황성연 파트너에게 문의해주세요.

(황성연 선교사)

연락처 : 한국 010-4915-7064

캄보디아 : +855-92-941-801

카톡 아이디 : hwangsy37

이메일 : hwangsy371@daum.net



Come and Join us!

인터서브 전략 사역팀 스토리

여러 모양으로 열방을 섬기는 인터서브 전략 사역팀

인터서브는 2017년부터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과 열방의 선교적 상황을 성찰하고 더 다양한 모양으로 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 사역팀을 구성하여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기 커피캠프에 참여하여 전문적인 기술 습득, 재교육, 또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4월 탈북자매와 저희 팀이 함께 1박 2일로 기도원을 방문하고 기도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요벨공동체에 많은 변화가 있는 가운데 저희 팀이 수시로 카페를 방문하여 매장에서 일하며 돕고 있습니다.
- 6월 초 출산을 앞둔 자매의 출산 축하 미팅과 기도회를 인터서브 사무실에서 가졌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1. 요벨에서 일할 새로운 청년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할 청년들을 보내주시기를
2. 개인회생절차가운데 자매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결정되고 순조로이 진행되도록
3. 7월에 출산하는 자매의 건강과 건강한 아기를 순산할 수 있도록
4. 원코리아팀이 올해 하반기에는 그동안의 경험을 매뉴얼화하여 내년부터는 관심자들과 탈북자매들을 연결하는 교육을 시작하려 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담당자 : 이만파트너 fromhim2016@gmail.com

원코리아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탈북 여성들을 섬깁니다)

- 한 탈북자매의 누적되는 빚으로 인한 경제부담을 저희 전략팀과 함께 의논하며 관련기관들을 방문했고, 그 자매의 개인회생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진행중에 있습니다.
- 4월 초 원코리아팀과 동역하는 요벨탈북민창업공동체의 상

이주민 사역

(우리 중에 나그네 된 자들을 환대하고 섬깁니다)

4년 전 시작된 예멘 내전으로 600만명 이상이 나그네로 방황하고 있으며, 어린이의 80%가 콜레라와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500여명의 예멘 난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태원에는 그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기 전까지 함께 사는 월세방이 있습니다. 한남동 J교회에서 고품이가 낀 벽지 교체해주었습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남을 통해 무슬림들은 자연스럽게 주님의 사랑을 맛보게 됩니다. 지난 2월 예멘 형제들과 함께 경복궁을 방문했는데 처음으로 광화문을 와보았다며 무척 좋아했습니다. 친구가 되는 길은 결코 먼데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멘 무슬림들은 기독교인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이슬람사원은 그리스도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가르칩니다. 기독교와 서양을 동일시하여 기독교가 자신들을 지배했으며 아직까지도 악을 끼치는 적대적인 존재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런 무슬림들에게 평범한 그리스도인들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은 왜곡된 인식을 하나씩 바꾸어 주는 복음으로 향하는 징검다리 돌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1. 예멘 내전으로 난민들은 유랑하며, 어린이들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 영혼들

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하소서.

- 이태원 앰하우스에 Y형제들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사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 셀터에 사는 회심자 형제들이 안정된 직업을 찾고, 사랑으로 하나되는 영적공동체를 세워 아랍형제들을 섬기는 리더로 성장하게 하도록
- 이태원에 이주민/난민 모자를 위한 동네 작은도서관(바라카도서관)을 위한 장소가 계약되었습니다. 인테리어와 필요한 물품들이 채워지도록.

담당자: 김기학 파트너 / khkim21c@gmail.com



다음세대 텐트 메이커 사역

(청의적 접근지역에서 전문성을 갖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20-35세 청년들을 텐트메이커로 양성합니다)

청년 선교 헌신자들을 현장에서 총체적 복음으로 무장하여 텐트메이커로서 선교적 삶을 사는 선교사로 훈련하기 위한 다텐 지역은 여러가지 새로운 도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4월 다텐 정기 모임에서는 10여명의 신앙의 선배들과 10여명의 청년들이 함께 만나 텐트메이커 선교에 대한 깊은 토론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6월 정기 모임에는 메릴랜드 주립대학 서명구 교수님과 함께 노동 소망에 대한 나눔을 통해 일터에서 노동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할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주 모이는 JBS 소그룹 모임은 6월 말에 5개월 간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9월부터 텐트메이커로서의 신학적 기반을 다지는 소그룹을 새롭게 시작할 예정입니다. 8월 첫 주 선교한국에서 다음 세대 텐트메이커 멘토링 림을 운영하게 되고, 8월 말경 10일간 T국으로 6명의 청년과 담당사역자들이 현장에서 텐트메이커 선교사들을 만나 그들의 삶과 사역을 심도 있게 배우는 짧은 단기 여행인 엑스페디션을 다녀오게 됩니다. 앞으로 3개월 간 진행될 다텐 사역들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담당자: 비제이 파트너 tentmakervijay@gmail.com



선교 담당 목사 세우기

지역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의 여행을 하려고 할 때 가장 필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선교적 교회의 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떻게 선교적 DNA를 만들고 그것이 교회 전체에 퍼지게 할까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교회의 리더십 구조로 가능할까? 현재와 같은 리더십 구조의 성격은 무엇일까?

최근에 한 지역 교회의 선교단체 간담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그 교회는 매년 교회와 협력하는 단체의 리더십을 초청해 격려와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지역 교회가 파송 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하려는 태도는 참으로 귀하다. 그 자리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질문을 했다. “우리 교회가 선교를 더 잘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지금 세우신 선교담당 목사가 최대한 오래 동안 이 자리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담임 목사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교회 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담임 목사의 리더십 DNA는 당연히 목회적(pastoral)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DNA가 자연스럽게 목회적 교회(pastoral church) 성향의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는 분명히 성도들을 돌보는 기능이 중심적 사역이다. 이런 교회의 DNA 속에서 선교적 교회를 만드는 일이 얼마나 가능할까?

선교적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교적 DNA, 즉 선교적 은사를 가진 리더십과 부서를 세워야 한다. 현실적으로 교회들이 선교적인 리더십을 배양하지 못하는 이유는 선교 담당 목회자를 세우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세운다 하더라도 잠시 거쳐가는 사역으로 여긴다. 많은 교회들이 선교담당 목사를 세운 지 2-3년이 지나면 교체한다. 순환 보직 정도로 생각한다. 만약 담임 목사를 2-3년 주기로 교체한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선교 담당 목사를 세운다면 최소한 10년 정도를 내다보고 역할을 맡기면 좋겠다. 아니, 그 보다 더 오래 그 직임을 감당하면 좋겠다. 그래야 선교 분야에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보다 업그레이드된 선교 사역을 전개할 수 있게 된다. 전임을 세우기 어렵다면 청년 담임 목사를 겸임으로 세우는 것을 추천한다. 청년 담당 목사들의 시기가 선교적으로 가장 역동성 있을 때이기도 하고, 또한 청년들을 통하여 선교 사역을 역동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다이나믹스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사역하는 선교 목사를 세우는 것, 선교적 교회를 향한 여정의 첫 단계이다. 

송기태 파트너 (인터서브 부대표, 교회 관계)



십자가와 구원의 문화적 이해

마크 베이커, 조엘 그린 지음,

최요한 옮김,

조이 선교회 출판부, 2013, 337P



저자: 공동 저자 중의 하나인 마크 베이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에 있는 메노나이트 성서대학교의 선교, 신학 조교수이다. 또한 조엘 그린은 미국 켄터키 주에 있는 예즈베리 신학교의 신약 해석학 교수이다.

십자가의 구속은 분명히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다. 또한 그 안에 속죄론 역시 복음의 핵심이다. 그런데 문제는 속죄론에 대한 문화적 이해가 역사적으로 변천해 왔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로마 제국의 형벌의 한 방법인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다. 그런데 그 십자가 처형은 출애굽의 구원과 연결된 어린양으로서의 죽으심이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갖는 의미에 대한 해석이 각 문화에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속죄론은 유럽 신학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여러 가지로 설명해 왔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네 가지 속죄론, 즉 승리자 그리스도 모델, 보상설, 도덕 감화설, 형벌 대속론을 대표적인 학설로 인정해 왔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이 네 가지를 조합해서 십자가를 가르쳤으며, 각 이론에는 다수의 변이가 있다.”(p.178). 이러한 속죄설에는 다분히 유럽인들의 문화관이 잘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형벌 대속론은 유럽인들에게는 아주 당연한 것이었고 이해하기도 쉬운 대속론이었다. 유럽인들의 가치관에서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사역했던 노먼 크라우스 선교사는 이러한 형벌 대속론이 일본 문화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관찰했다. 크라우스는 일본 문화에 ‘수치’에 대한 전제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일본인들에 형벌 대속론은 충분히 납득되지 않는 설명이었다. 그들에게는 ‘수치’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크라우스 선교사가 발견한 것은 십자가의 구속이 죄로 인한 인간들의 수치도 해결해 주셨다는 발견하게 된다.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오히려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더 폭넓은 의미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로잔 언약은 “온 교회가 온 세상에 온전한 복음을”이라는 구호를 채택하고 있다. 온전한 복음은 무엇인가? 1981년 일본의 홋카이도에서 한 일본인 목사가 크라우스 선교사에게 했던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자. “예수는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이러한 질문이 과연 지구상의 모든 문화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십자가의 높이와 넓이를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가? 돈 리차드슨이 파푸아 뉴기니에서 두 부족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화해의 아이’로 설명한 것 같이 우리는 각 문화에서 ‘구속적 유사(redemptive analogy)’를 구사할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모든 민족을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각 민족이 이해할 수 있는 대속론을 가지고 계심을 믿는다. 어느 민족에게는 너희 죄가 양털 같이 사해지는 것으로, 어떤 민족에게는 눈보다 희게 됨으로 말이다. **✠**

송기태 파트너(인터서브 부대표, 교회 관계)

선교한국 2018 대회

2018. 8. 6 MON - 10 FRI
세종대학교

2018.3.5
등록 시작



Re_ call, Bible,
tune, build, start

주관 IVF 한국기독교학생회
주최 선교한국 2018 조직위원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74, 3층(07030)
T. 02-563-2468 | F. 02-532-5890
2018@missionkorea.org | www.missionkorea.org



퍼스펙티브스

는 선교 관심자들이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관점을 배우고 전략적으로 헌신하도록 돕는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1973년 USCWM(US Center for World Mission)의 랄프 윈터 박사가 주도하여 만들어진 퍼스펙티브스는 한국에서 200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규과정은 봄과 가을에 국내외에서 진행되며 집중훈련과정은 목회자, 선교사, 선교단체 간사 등을 위해 겨울에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미션파트너스의 퍼스펙티브스 과정은 Frontier Ventures(구 USCWM)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수료증을 발행합니다.



성경적관점

하나님의 온 세상을 향한 한 가지 목적은 무엇인가?



역사적관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 그리고 이제 남은 과업은 무엇인가?



문화적관점

남은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복음은 어떻게 문화의 장벽을 넘을 것인가?



전략적관점

미복음화 된 종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2018년 가을학기 전국 **대개강**

*훈련비 : 가을학기 160,000원 / 집중훈련과정 290,000원
*최소시 행정비 1만원을 제외하고 환불해드립니다.

수도권

- 서울월요일 09.10 / 매주 월 7pm / 서현교회(2,6호선 합정역)
- 서울토요일 09.08 / 매주 토 10am / 성도교회(1,4호선 서울역 / 4호선 회현역)
- 서울강남 09.11 / 매주 화 7pm / 사랑의교회(2호선 서초역)
- 삼 일 09.04 / 매주 화 7pm / 삼일교회(4호선 숙대입구역) *
- 성 북 09.14 / 매주 금 7pm / 로템나무교회(6호선 안암역)
- 송 파 09.13 / 매주 목 7pm / 주님의교회(2,9호선 종합운동장역)
- 서빙고 11월 중 개강 예정
- 신반포 09.27 / 매주 목 7pm / 신반포교회(9호선 금정역)
- 군포 9월 중 개강 예정 / 군포세린교회(1호선 금정역, 4호선 신본역)
- 동탄 09.29 / 매주 토 1:30pm / 하늘빛우리교회(반송동)
- 분당만나 09.20 / 매주 목 7pm / 만나교회(분당선 아탑역)
- 인천 09.03 / 매주 월 7pm / 계산교회(인천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
- 주안정보 08.25 / 매주 토 1:30pm / 주안장로교회(인천1호선 부평시장역)

강원.충청.경상.전라.제주

- 천 안 9월 중 개강
- 대전중앙 9월 중 개강 / 대전중앙교회(1호선 서대전네거리역)
- 대전대흥 9월 중 개강 / 대흥침례교회(대전1호선 오룡역) *
- 광주 09.13 / 매주 목 7pm / 양림교회(양림동)
- 거제 09.08 / 매주 토 3:30pm / 고현교회(거제시청)
- 창원가음정 09.08 / 매주 토 10am / 가음정교회(가음동)
- 부산 09.08 / 매주 토 3pm / 대청교회(1호선 두산역)

해외

- 싱가폴 집중 08.17 / 매주 금,토,일 / 싱가포르 나섬교회

집중훈련과정

- 2018.01.29(월) ~ 02.03(토) /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수원)
- *표시는 해당 교인만 등록 가능한 클래스입니다.

* 청주, 전주, 울산 등지에서 추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개강정보 및 온라인신청 www.psp.or.kr

psp@missionpartners.kr / www.psp.or.kr / 02-889-6400 / 미션파트너스 퍼스펙티브스

- 아시아 최빈국 중 하나인 캄보디아 대학생들의 생활비 지원 및 장학금 후원을 목적으로 캄보디아 조이가 직접 재배, 판매하는 후추입니다.
- 고기, 각종 샐러드 등 각종 요리에 후추가루가 아닌 통후추를 갈아넣으면 풍미가 살아납니다.

♪ 지인에게 추천 및 선물하셔서 소중한 후원에 함께해주세요! ♪

착한후추

사시고 후원에 동참하세요!

선택 **1**

그라인더형 용기(50g)
12,000원



선택 **2**

캄보디아산 통후추 (50g)
3,000원

주문 및 문의

카톡과 문자 메시지로 주문 받습니다.

TALK ID_hwangsy37 010-4915-7064 TALK ID_Kjulie719 010-4053-2332 E-mail camjoyfarm@gmail.com

* 모든 상품 택배비 별도

입금 및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2 - 357 - 239394 (김낙연)

INTERSERVE KOREA

재정 후원자

2018년 4월 ~ 6월

재정으로 동역해 주시는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요청하시는 분에 한해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인터서브 본부 후원

교회 / 단체 후원

광고산울교회 돈암제일교회 만나교회 사랑의교회 소명교회 송파제일교회 천안장로교회 한우리교회(NZ) 호산나교회

개인 후원

고지혜 권경미 김경진A 김광성 김민철 김성우 김영환 김용태 김은우 김은정D 김민순C 김자용 김진수 김진성 박창규 남광현 도경우 박승민B 박용준 박재형 박중서 박중원 박현성 박홍석 방은미방중현 분당제일여성병원(백은찬) 서영진 성민규 손원민 송성규 신찬미 안강현 안상훈 안정용 안창남 양승학 오경채 오규덕 오미연 유한익 윤해운 이강철 이대준 이수복 이승도 이윤미 이은혁 이정채 장승기 장승은 전종철 정대언 정연철 정희원 조진웅 최바울 최중태 트리니티소프트 하도운 한기수 한상우 한상환 한승훈 허성호 홍영기 황인태

인터서브 파트너 후원

교회 / 단체 후원

(사)부산의료선교회 15남선교회 81그룹 3권사회 Arumdaun Presbyterian Church Hawaii Central Presbyterian Church In2 Onnuri Community Church CMF선교부 New Life Fellowship New Life Foundation International, Inc. ROHTHEM PRESBYTERIAN SHINING STAR COMMUNITY 실교회 가음정교회 거창제일교회 경산보통교회 고촌제일교회 광고산울교회 광안중앙교회 초동부 광영교회 광주남부교회 광주동명교회 광주새순교회 교동교회 구미향곡교회 군산드림교회 그말씀교회 기쁨의교회B 기업은행 기독교교회 길베포교회 김제신광교회 김제중앙교회 나눔교회 나눔교회 나성영락교회 나침반교회 남대문교회남대문선교회 남산제일교회 남서울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남서울중앙교회 남포교회 높은뜻푸른교회높은뜻하늘교회 늘푸른침례교회 대동교회 대전중앙교회 대성교회 A 대성교회 영광중앙교회 돈암제일교회 동부제일교회 동은교회 동현교회 등촌제일교회 마산복음교회 마산삼일교회 마산재건교회 맑은물교회 모향교회 목인교회 몸뚱교회 무안동부교회 문성교회 문성성민침례교회 미라클호산나교회 반포침례교회 반포침례교회 몽골목장 백수남부교회 범성교회 복된교회 부산남산교회 부산시민교회 부산중앙교회 부산행복한교회 부전교회 부평교회 북서울꿈의교회 북성교회 분당사랑의교회 안드레셀 분당샘물교회 분당우리교회 분당중앙교회 (사)PMC 국제의료협력단 (사)한국기독교학생회 사림의교회A 사림의교회 B 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여성직장인 다락방 사랑의교회기드온선교팀 사랑의교회바나바 사랑의교회청년부 삶이기쁜교회 삼일교회A 상도제일교회편사회 새동네교회 새루남교회A 새에덴교회 새은혜교회 생명생전원교회 서둔교회 서머나교회 서울남교회 서울영동교회 서울우림교회 서울제일교회 서울중앙교회선교제일교회 선일교회 선한목자교회 선한목자선교회성가교회 성남산성교회 성덕교회A 성민교회 성산교회 성현교회 세한제일교회 소명교회 소양제일교회 송도제일교회 송파

사랑의교회 송파제일교회 수서은혜교회 수영로교회 수지열린문교회 수진교회 순복음여수교회 순천북부교회 스피릿교회 신반포교회 신성교회 신용교회 신흥교회B 아가페열방선교회 아돌람교회 아시안미션 안산동산교회 양무교회 양문교회 여수문교회 여수안디옥교회 여수제일교회 연세대원주의과대학교회 연원선교회 영진교회 연희교회 열린교회 열방교회 열방교회C 열방교회E 영광교회A 영덕교회 영주교회 영주시민교회 영화교회 예담교회 예담중앙교회 예수인교회3남전교회 예수인교회열방기도팀 유포교회신교부 오산교회 온누리교회 온누리선교회 온사라교회 용산교회 용평교회 울산교회 울산새소망교회 울산시민교회온누리모장 울산제일교회 월내교회 육단교회는 진교회는 한교회는 을지로교회 제1여전교회 의정부제일교회 일동교회 일산총신교회 임마누엘선교회 작전중앙교회 장전제일교회 재송제일교회 전주미래교회 전주사랑의교회 전주새중앙교회 전주완선교회 전주제자교회 제1영도교회 제4영도교회 청년회 좋은나우리교회 주내림교회 주님의새교회 주안장로교회(영천재단) 주은혜교회 주익빛교회 죽전우리교회 중앙제일교회 중원교회 지주교회 진주성북교회 참좋은교회 창대교회 창원남산교회 창원반림교회 창원세광교회 창원한빛교회 창조교회 청양한인교회 총회(합신)세계선교회 춘천소망교회 춘천효자감리교회 치과의료선교회 친한교회 침례수도교회 침산제일교회 토론토영락교회 평촌새중앙교회 평화동산교회 포도나무교회 포항총신교회 하나교회 하늘빛우리교회 한국독립교회 한국중앙교회 한미음교회한 소망교회A 한양교회 한우리교회 한우리교회(NZ) 한울교회 할렐루야교회 함께하는교회 함께하는교회A 해운대선일교회 해운대제일교회 향성교회 형제선교회 헤빈교회 혜성교회 호산나교회 흥릉교회 흥익교회 화양중앙교회 흑석은혜교회 힐라교회

개인 후원

(주)MP코퍼레이션 (주)베노 (주)애거슨 (주)앤드비온드투자자문 (주)에치얼알 (주)우림웅선 (주)플러시드 김동준 Andrea Randall Andrew Choi Bae Joseph Byung Geun Kim Chung Lee Crystal Kim Daniel Smith Greg Moore HJCM Hyun Chang James Long Jonathan Choi Joo-Kwang Yun Joon Lee Kyoungah (Sara) White Lebekah Shin LIGHT OF LOVE MISSION Lydia Kim Mihe Kim OH JACK NEHEMIAH Steven Kim Yoon-Joo Lee 김영란 강경범 강구봉 강기현 강남현대치과 강대훈 강동주 강동성 강명현 강석문 강성수 강신희 강우찬 강은주 강의혁 강주성 강진태 강필재 강해정 강현정 강형성 강혜란 강혜영 강훈 강희명 경기남IVF 경인IVF 경여자고두식 고영덕 고영진 고윤정 고은영 고정숙 고현주 공극남 공숙영 공지숙 박소현 박윤근 박은미 박은희 박정숙 구성진 구자익 구학서 구현영 권광수 권두성 권미영 권성민 권선미 권선연B 권수희 권순금 권영기 권윤경 권이영 권일한 권필상 권하영 권혜중 권희영 그루터기 김성전설산업(주) 기독교대한성경교 길성주 김강산 김경식B 김경자 김경자C 김경주 김고운이 김관중 김광복 김교남 김귀례 김규원 김근석 김근영 김기상 김기주 김기학 김대동 김대훈 김덕이 김도형 김도환 김동하 김두향 김래영 김만형 김명희 김문식 김문욱 김미란A 김미령 김미선C 김미양 김미영B 김미진 김민수C 김민

정B 김박굴 김반설 김박훈 김병석 김병준 김보라B 김보영 김복실 김봉철 김상규 김상관 김상준 김상중 김세열 김선아 김선욱 김선철 김성근 김성배 김성수 김성식C 김성재 김성환 김소영 김소영 김소영D 김소영D 김수경 김순현 김순귀 김순열 김순정 김아영 김아름 김애리 김예스더 김영수C 김영숙F 김영숙G 김영순C 김영우A 김영일B 김영주 김영중 김영혜B 김영숙 김예진 김요한 김용문 김용환 김용현 김우원B 김옥주 김유자 김유진 김유미 김윤선 김윤희C 김은경 김은숙 김은자 김은주D 김은주D 김은주F 김은진 김은혜B 김인선 김인혜 김일래 김일웅 김재승 김재민 김정두 김정우 김정은A 김정자C 김호 김형화 김형희 김형희D 김정희E 김조현 김중구 김중민 김중옥 김중주 김중철C 김중현 김중희 김주리 김주민 김주연 김주영A 김주영B 김주영C 김지영D 김지웅 김지웅A 김지현A 김지호 김지홍 김지홍B 김진숙 김진우 김진이 김진화 김진희 B 김창현 김창현 김철민 김철화 김준연 김중곤 김태우B 김태원 김학순 김한기 김향중 김행대 김행열 김현희 김현기 김현숙A 김현숙F 김현순 김현아 김현정 김현진 김현준B 김현진 김현태 김형국 김형철 김혜경 김혜영 김혜영D 김혜영F 김혜향 김호지 김호성 김화복 김화복 김화민 김화연 김효남 김훈기 김희석 김희숙D 김희영 김희영A 나경규 나미영 나성준 나순인A 나순인B 나용화 나유미 나인석 나희수 나희수B 남정아 남보라 남상현 남용진 남자도곡구다라방 남정우 남정우 남타우 노경혜 노동은 노동현 노명국 노승환 노용호 노인계 노인순 노재근 노재열 노혜정 누가회선교부 단혜봉 대학로서울안과 더바인 도서출판 토기장이 도록현 동부산VF 동아이앤지(김용수) 돌로스 드림공동체 류경희 류남현 류병원 류수연 류인진 류현정 류형원 류화정 마하나미 만들사 모영진 모중식 문성용 문성일 문성철 문성호 문소경 문은수 문은희 문재현 문정화 문지현B 문진수C 문형로 문혜영 문혜진 미래연세 내과 민미옥 민선애 민승재 민현중 박경규 박경미 박경수A 박경순 박경춘 박근화 박대영 박대웅 박덕우 박명동 박명철 박미선 박미자 박민안 박병호 박삼근 박상우 박선미 박선영 박선호 박선호 박성달 박세연 박세연 박소연 박송희 박수정 박수현 박수자 박승룡 박승민B 박양근 박영만 박영삼 박영옥 박영옥B 박영화 박용규 박용덕 박용경 박유미B 박은비 박은신 박재석 박정건 박정경 박정미 박정섭A 박정섭B 박정섭A 박정숙B 박정숙C 박정화 박종표 박주영A 박종희 박지명 박지영A 박지영B 박지윤 박진석A 박진석B 박진희 박찬광 박찬수 박찬우B 박찬민 박춘원 박태경 박태성B 박태원 박향연 박현서 박현정 박혜영 박효숙 박희영 배경자 배기선 배드로 배미진 배상필 배에스더 배영희B 배용구 배지희 배중우 배태석 배혜영 백미희 백복숙 백성대 백영준 백운용 백재석 백지영 변성호 변시연 변행진 변희수 부경누가회 분당제일여성병원(백은찬) 비전AGC한중 사랑여직장 산들한의원 삼신진공(주) 서양석 서경복 서경애 서경원 서명구 서민지 서애란 서영례 서유준 서은선 서은정 서재형 서정복 서정화 서주연 서지영 서지자 서진 서진현 서주연 서형민 서호균 석정은 설태인 성남노회 성모안과 성보석 성지희 성호준 세계로병원간호사회 소혜성 손경선 손계련 손규성 손기원 손미경 손선희 손원민 손인규 손정숙 손정영 손지향 손혜진 손호정 송계용 송문수 송상현 송수정 송유한 송우석 송원석 송윤석 송은혜 송인진 송인규 송재현 송정국 송찬영 송태영 송태원 송향미 송혜경 수연규 승미라 신갑용 신강성 신권이 신동규 신동업 신두리 신두호 신석호 신석현 신선련 신선희 신순재 신승범 신애선 신영재 신일경 신옥순 신윤근 신윤정 신윤희 신은수 신인실 신인호 신일호 신진수 신진수 신중암 신중호 신향수 신현금 신혜경 심선주 심우혁 심재철 안강 안강현 안광중 안광호 안미희 안병우 안설미 안성영 안수경 안승희 안예림 안용욱 안은경B 안은숙 안인숙 안인혜 안재현 안진숙 안진영 안창남 안태웅 안혜영 안혜진 양경모 양동훈 양영철 양상하의원 양세웅 양유순 양재원 양정숙 양준오 양현수 여련준 엄선리여영대 여운성 여은희 여진희 연미향 연태진 연화지 염경희 예대옥 예민자 예수병원 간호부 이수희 오경섭 오규덕 오동균 오보연 오부희 오세원 오수현 오승우 오창남 오현영 하연옥순애 왕소은 원스탑관세법인연정원 원중부 위양향 민상진 유성경 유순남 유순화 유영진B 유영숙 유영진 유윤선 유은경 유은지 유인영 유재희 유정희B 유주희A 유지영 유지현A 유지현B 유정윤 유준광 유준길 유향임 유현 유현성 유현성 유효정 유민혜 윤경혜 윤미옥 윤민수 윤선우 윤성만 윤성민 윤성희 윤소영B 윤아영 윤연수 윤영주 윤영한 윤재욱 윤정혜 윤주택 윤지숙 윤재천 윤태용 윤해욱 윤형란 윤혜성 윤화자 은혜의집 이강택 이강희B 이경희D 이경연 이경은 이경중 이공우 이광배 이광은 이귀복 이규석 이규순 이도호 이기춘 이나래 이대영 이태용 이대진 이덕수 이돈선 이동연 이명규 이명숙 이명숙C 이미선A 이미자 이민철 이민형 이병철A 이부근 이상규 이상돈 이상수 이상엽 이상윤 이상은

이상협 이상호C 이상희B 이석재 이선아 이선영C 이섭 이성경B 이성근 이성우 이성현B 이성호C 이성호D 이성훈 이성희 A 이소선 이소영C 이소영D 이슬임 이송미 이송희 이수귀 이수형B 이수환 이승도 이승주 이송진 이송현A 이송훈A 이송훈B 이신욱 이신정B 이신준 이연수 이연희C 이영민C 이영배 이영중 이영주 이영주A 이예일 이예주 이연희 이용희B 이우련 이원경A 이원복 이원숙 이원신 이원우 이원형B 이윤경 이윤숙 이윤휘 이은경A 이은경E 이은선 이은숙 이은우B 이은자 이은자B 이은정 이애돈 이애준 이애록 이애록 이재원 이재은 이재형 이정 이정경B 이정민B 이정숙D 이정훈A 이종명 이종민B 이주옥 이주희 이준호A 이준희B 이준희내과의원 이지선A 이지영 이지은 이지윤 이진서 이찬수B 이찬우 이찬우후원회 이창모 이창진 이철민 이준복 이준표 이준희 이태웅 이태형 이태희 이태돈 이태준 이태란 이태권 이태규 이현미 이현정 이형수 이형숙 이혜정 이혜정C 이호섭 이호철 이홍규 이홍길 이화동창선교부기도회 이화여자대학교 햇빛회 이화인 이효순 인푸라인코리아 일산에치과의원 임오삼 임경래 임그린 임선아 임성일 임성현 임애숙 임영도 임영민A 임영실 임영자 임영주 임윤재 임윤재 임재광 임정은 임준수 임지현 임준우 임현진 임형준 임화용 장경민 장금희 장명자B 장미 장미선 장성준 장소자 장수영 장수정 장영경 장영진 장원실 장우성 장윤석 장진호 장주희 장중호 장철복 장재경 장현열 장현성 전경희A 전명옥 전미아

인터서브 프렌즈

평범한 내 삶 속 특별한 부르심



Inter serve

후원계좌
KEB하나 071-13-20258-5 (인터서브코리아)

지료후원 7530366 (인터서브코리아)

CMS (Cash Management Service)

후원 전화 및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선교사 개별 후원계좌는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송금 액수나 송금자 성명이 변경되었거나 처음 후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서브코리아 재정담당
Tel_ 031-778-7934
E-mail_ finance2isk@gmail.com
Web_ www.interserve.kr

인 터 서 브

프렌즈

통권 129호
2018 SUMMER

WATERCOLOR STYLE

우리는 누구 입니까?

인터서브는 1852년부터 아랍과 아시아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총체적 선교를 통해 복음을 증거해 온 글로벌 선교단체입니다.

비전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삶과 공동체

목적 선언문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와 아랍 세계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전 세계 교회들과의 파트너십과 총체적 선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입니다.

핵심가치

1. 하나님을 의존함
2. 공동체
3.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4. 파트너십
5. 온전성
6. 총체적
7. 종 된 섬김

Serve Nations with A Prayer

열방을 위한 인터서브 S,N,A,P 기도회에 함께 참여해 보세요.

국내

서울/경기 : 매달 셋째 주 월요일 7시 / 담당자 : 윤연수 매니저 031-778-7931

부산 : 매달 셋째 수 목요일 8시 / 담당자 : 정동훈 이사 010-2551-9395

광주 / 담당자 : 정동훈 이사 010-3646-8291

대구 / 담당자 : 박종원 이사 010-5310-8354

대전 / 담당자 : 유정준 이사 010-5404-7175

울주 / 담당자 : 윤기주 이사 010-2316-2696

전주 / 담당자 : 조진웅 이사 010-3616-2338

포항 / 담당자 : 최바울 이사 010-8521-3491

해외

뉴질랜드 : 신규식 이사 642-141-7756

호주 : 송태원 이사 (+61) 416-467-397

미국(LA) : 박영국 목사 (+562) 972-7702

캐나다(토론토) : 임재량 목사 (+1) 647-291-290

인터서브 계간지 2018년 여름호 통권 129호

발행인 조섬

편집인 이나라

발행일 2018. 7. 10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A-1206

전 화 031-778-7931 팩스 031-728-4777

이메일 interservekorea@gmail.com

홈페이지 interserv.kr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interservekorea

디자인 · 인쇄 피터폴 010-3373-3750

<인터서브 프렌즈>에 게재된 글과 사진과 그림은 무단 복제 할 수 없습니다.

experience
Life As Mission

experience
Life As Mission

당신의 삶,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A동-1206호 (금곡동 코오롱트리플리스 우)13616

Tel : 031-778-7932 Fax : 031-728-4777 Email : interservekorea@gmail.com H.P : interserve.kr FB : facebook.com/interservekorea
